

뉴스홈 | 최신기사

[우크라 침공] "푸틴 손떼라" 유럽·미주·중동·아시아 곳곳 규탄시위

송고시간 | 2022-02-25 10:04

요약 ? 댓글 0 가 0

차병섭 기자
 기자 페이지

재외 우크라이나 절규...꽃 풍선 들고 침공규탄·반전 촉구
 러시아에선 침공 반대 외친 시민 1천400여명 철창신세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열린 반전 집회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세계 각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영상전문매체 APTN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는 재외 우크라이나인을 비롯한 수백명이 모여 전쟁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의 이번 침공을 겨냥해 우크라이나 국기 모양의 플래카드 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멈추라',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라'는 등의 문구를 적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우크라이나인은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자다가 우크라이나의 자매가 전화해와 됐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이 몰아치고 있어 악몽이었다"면서 "유럽과 전 세계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른 우크라이나인은 "독일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멈추고 러시아산 가스 구매를 멈춰야 한다"면서 "독일은 (헬멧이 아닌) 무기처럼 타당한 것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10회 오피니언결과 9 12 15 25 34 36 + 3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여성 전용 고도소라는데...美 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영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2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열린 반전 집회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파리 파리 레퐁블리크 광장에서도 약 1천명이 모여 반전을 외쳤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국기와 함께 2008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조지아 국기, 유럽연합(EU) 깃발을 흔들었고, 꽃이나 풍선을 든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영국 런던에서도 수백명이 모여 영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레바논 주재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도 우크라이나인을 중심으로 100여명이 러시아 규탄 집회를 했다.

시위에 참여한 레바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는 매우 평화로운 국가지만 1m 영토를 위해서도 싸울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DC의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지자 100명이 모였고, 바닥에 '살인'이라는 단어를 적는 등 공공기물 파손행위를 한 참가자 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UPI 통신이 전했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푸시킨스카야 광장에서 열린 반전 집회 참가자의 연행 장면[AFP=연합뉴스]

스페인-네덜란드-이탈리아-그리스-몬테네그로-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각지와 일본, 멕시코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지 집회가 열렸다.

이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내 51개 도시에서도 반전 집회가 열렸다고 현지 독립감시기구 'OVD-인포'가 밝혔다.

러시아 경찰은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든 이들 시위 참가자 최소 1천400명을 체포했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야권 운동가로 구금 상태로 재판 중인 알렉세이 나발니는 법원 심리 도중 "이 전쟁에 반대한다"면서 "경각 하강 문제로부터 러시아인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신을 위한 콘텐츠가 가득, 무료로
LOTTE CASTLE
www.lotte.orix.co.kr

We Do Technology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유튜브로 보기

bsc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25 10:04 송고

#우크라이나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밀동밀동...누가 확대했나
결국 우크라이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엄중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37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0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9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정?

54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8

뭐하고 놀까? #홍콩 →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넛닷컴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다스

뉴스+ 이슈동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한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중로구 을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ws